

# 동시대 불교 활용성에 주목한 美 젊은이들

미국 캘리포니아 USC 대학(USC Univ.) 종교학과 조교수가 불교를 주제로 LA 일대에서 현장 수업을 진행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USC News〉지는 7월 14일 보도를 통해 “이번 학기에 개설된 ‘불교문화개론’ 강좌를 맡은 로리 므스(Lori Meeks·종교학) 조교수가 수강 학생들을 이끌고 LA 지역의 불교사찰과 명상센터를 방문하는 현장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50여 명의 수강생들은 현장에서 보고 듣는 사실적인 불교의 모습을 통해 불교의 이해를 더욱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호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USC News〉지에 따르면, 교양과목으로 이번 학기에 처음 개설된 ‘불교문화개론’ 수업은 ‘고대 불교문화와 동시대 사찰 생활’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대 불교문화와 현대 불교생활 사이의 연관성을 살피고 있다. 이 강좌에는 종교학은 물론 동양학, 물리학, 사회체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USC 대학 재학생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고대의 가르침이 동시대에 어떻게 전해지고,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이번 수업의 주요 과제”라고 설명한 므스 조교수는 “동양학, 물리학, 사회체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들이 조사와 분석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 분야에 불교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USC News〉지에 따르면, 수강생들은 최근 LA 도심에 있는 소토 젠(Soto Zen) 센터를 방문해, 명상 지도자인 슈모 코지마(Shumyo Kojima) 스님을 만났다. 이날



슈모 코지마(Shumyo Kojima) 스님. 코지마 스님은 수행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로리 므스(Lori Meeks·종교학)의 ‘불교문화개론’ 수강생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안토니 케사돈트(Anthony Casadont, 물리학 전공) 씨. 그는 이번 현장 수업에서 일본불교인 일련종 계열 사찰과 명상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 50여 명의 USC 대학 재학생들 ... LA 지역 불교사찰 명상센터 탐방 로리 므스 종교학과 조교수, 현장 중심 ‘불교문화개론’ 강좌 진행

수강생들은 희미한 불빛에 감싸인 명상 공간에서 방석에 앉아 코지마 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명상을 실시하고, 스님과의 인터뷰 시간도 가졌다.

므스 교수는 “기초 문헌을 조사한 수강생들은 코지마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지금의 불교가 고대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고, 동시대에서 어떤 가치를 찾아내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데 주력했다는 점에서 강의 목적에 일정부분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며 소토 젠 센터에서의 현장 수업을 평가했다.

〈USC News〉지에 따르면, 현장 수업은 수강생들이 티베트·태국·베트남·한

국·중국·일본불교계 등 LA 소재 사찰이나 명상센터 중 5곳을 선정, 각각 3차례에 걸쳐 수행에 직접 참여하고 재적 스님과의 인터뷰 등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또한 수강생들은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교사찰과 명상센터를 직접 방문해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수업”이라는 마라 구에바라(Mara Guevarra, 동양학 전공) 씨는 “한국계 이민 세대의 사상과 문화를 연구하고 싶다”며 “달마 젠(Dharma Zen) 센터는 한국계 이민 1세대의 수행처였는데, 현재 한국계 미국인들의

지도에 순수 백인 불자들이 교육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2~3세대의 아시아계 미국인 불자들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번 수업을 들으며 일련종 계열 사찰을 여러 곳 방문 조사했다”는 안토니 케사돈트(Anthony Casadont, 물리학 전공) 씨는 “선(zen)은 정신적인 수행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했는데, 일련종의 경우 찬트(chant)를 통해 보다 많은 깨달음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알게돼 흥미로웠다”며 “이번 수업을 통해 불교는 철학이나 이념의 어떤 유형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스포츠와 불교의 연관성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자보리우스 알렌(Javorius Allen, 사회학 전공) 씨는 “순간순간의 집중에서 삶의 가치를 찾고 있는 불교는 스포츠와 그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불교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역시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 끝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알렌 씨는 “운동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했을 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새로운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점 역시 불교와 스포츠의 관계를 엮고 있는 대목이다”고 덧붙였다.

〈USC News〉지는 이번 강좌를 기획·진행하고 있는 므스 교수의 말을 인용, “고대 문헌을 읽는 것은 종교 교육의 오랜 전통이지만, 이번 강좌에서 그 문헌의 가르침이 동시대에 어떻게 수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까지의 종교 교육과는 다르다”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한일 평화’ 신고 건너는 미륵보살 한국과 일본 작가가 공동작업으로 완성한 작품이다. 이것이 의미있는 것은 불교 문화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전해진 과정을 그대로 스토리텔링화해서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목조선은 백제에서 일본 오사카에 이르는 배길을 건너고 있다. 배에 타고 있는 이들은 한일 양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미륵보살이다. 미륵보살이 상징하는 것은 다름 아닌 평화. 이는 한일 간 우호적 문화 교류를 이뤄낸 역사시기를 돌아보며 한일 양국 간 조화로운 미래를 그려봤으면 한다는 작가들의 의도에서도 읽을 수 있다. 도기로 제작된 미륵보살상은 박동기(47) 작가가, 목조선은 다카시 기쿠치(53) 조각가가 만들었다. 두 작가는 한일 예술가 그룹 ‘포레스트 비욘드’ 회원이며 양국에서 꾸준히 현대 예술전을 열었다. 이 작품은 나라현미술관에서 7월 21일까지 전시됐다. **배현진 기자**

## 샤마르 린포체, 히말라야 안장될 수 있을까

네팔 정부, 중국 ‘눈치’ 등으로 장례위원회 요구 거절



지난 6월 독일에서 심장마비로 열반한 샤마르 린포체(Shamar Rinpoche)

지난 6월 독일에서 심장마비로 열반한 샤마르 린포체(Shamar Rinpoche)가 네팔 정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EDX〉지는 7월 18일 “티베트 불교 주요 4대 종파 까규(Kagyü)파의 가장 영향력 있는 린포체 중 한 분, 샤마르 린포체의 장례위원회는 네팔에 린포체를 안장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네팔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중국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히말라야 불교계의 상황으로 장례위원회 요구가 쉽게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샤마르 린포체의 영구는 인도 뉴델리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켄포(샤마르 린포체 장례위원·카르마파 연구소장) 린포체는 “네팔 정부가 샤마르 린포체의 안장을 반대하는 것은 중국의 압력과 함께 카르마파 환생자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샤마르 린포체의 행보에 히말라야 불교계가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히말라야 불교계에서 샤마르 린포체의 과거 위상을 생각하며 여법하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62세로 열반한 샤마르 린포체는 티베트 동부 더게에서 태어나 4살 때 카르마파 랑중 락빠 도제로부터 14대 샤마르파로 공식 인정받았다.

샤마르는 카르마파의 중요 제자 3명 중 한명으로 16대 카르마파 사후 환생자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린라 타에 도제(Trinley Thaye Dorje)를 1994년 환생자로 추대했으나, 다른 린포체들은 현재 공식 카르마파인 오겐 린라 도제(Orgyen Trinley Dorje)를 추대해 환생자 인정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14대 달라이 라마는 오겐 린라 도제를 공식 17대 카르마파로 인정하면서 논쟁이 종식됐다.

중국 통치하에 있는 티베트를 탈출해 2000년 인도로 망명한 공식 카르마파 오겐 린라 도제는 인도 다람살라 규포사원에 머물고 있으며 샤마르파가 추대한 린라 타에 도제는 1994년 인도 망명 이후 인도 델리에 거주하며 자신을 따르는 신자들이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스리랑카 급진 불교계, 교황 공식 사과 요구

교황 프란치스코, 내년 스리랑카 방문 예정



지난 8일 로마 교황청을 찾은 스리랑카 가톨릭교도들과 만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 스리랑카 가톨릭교도들은 이날 교황의 요청으로 전통 음악과 춤 공연을 선보였다.

스리랑카 종교 분쟁의 정점에서 있는 급진적 불교그룹이 교황 프란치스코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ABC News〉지는 7월 6일 “스리랑카의 급진적 불교그룹 모두 바라 세나(Bodu Bala Sena)가 교황의 내년 스리랑카 방문에 앞서 과거 기독교 식민통치 시절 남아시아 일대에서 저질러진 잔학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두 바라 세나를 이끌고 있는 갈라고다 아트 가나사라(Galagoda Atte Gnanasara) 스님은 스리랑카 주재 외국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스리랑카를 비롯해 남아시아 일대에서 과거 기독교의 만행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갈라고다 아트 가나사라 스님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모두 우리에게 적잖은 해를 끼쳤다”며 “당시 포르투갈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원을 받아 1505-1948년 사이에 스리랑카에 잇달아 식민지를 설립했고, 네덜란드와 영국은 자신의 기독교 교단을 설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지난 2월 8일 교황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스리랑카 순례객 약 1만2000명과 만나, 스리랑카 국민들의 종교간 화해를 요청하면서 스리랑카 방문 요청을 수락했다.

이 자리에서 교황은 엘버트 말콤 란치스 패터벤디지 돈 추기경(스리랑카 콜롬보대 교구장)이 주례한 미사가 끝난 후 란치스 추기경이 스리랑카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자 “나는 여러분의 초청을 환영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스리랑카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 개 이상! 그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용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 안성맞춤!

종류	컵종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날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 (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범위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범위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돼라